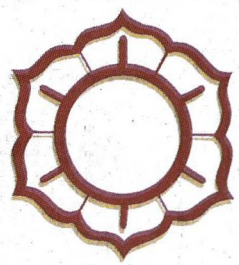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홍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5년
3월 2일
수요일
제65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부유할수록 더욱 근면하고 보시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할 것이며, 실천함에 있어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선을 행할 때도 높은 자는 아니되며 실(實)되되 허(虛)한 것 같이 해야 하며,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해야 하며 알지도 모르는 것 같이 해야 하느니라.

발행인: 우승 편집인: 김용주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즉신성불의 정통밀교 중흥”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법회

총지종(총리위원장 우승)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98주기 총지종 창종주 원정대성사의 탄신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번 탄신법회는 개식사, 고유, 봉행사, 탄신축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일을 종단 경축일로 제정하여 전국사원에서 성대하게 봉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원정기념관’을 개관하여 원정기념관에서 탄신법회를 봉행하고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는 고유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항상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이 불제자의 도리요, 이 땅에 윤원대도, 즉신성불의 정법밀교를 뿌리내리시어 법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원정대성사님께 엎드려 감사드리며, 그 보은의 마음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전 승단과 교도는 더욱더 용맹정진하고, 탄신 100주년에는 종단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조명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는 종단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승 총리위원장은 봉행사에서 “좀 더 일찍이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이런 법회를 봉행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밀엄국토와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여 중생구제의 대원을 이룩하신 원정대성사님의 뜻을 살리고, 종단은 창종 당시의 대원을 다시 되새기며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가 끝난 후 효강 종령예하는 비록하여 스승과 교도들은 ‘원정기념관’에 전시된 원정대성사의 유품과



총지종 종령 효강에게서 “종단발전을 위해 전 승단과 교도가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다.

창종 당시의 사자들을 관망하며 이 땅에 밀교를 흥포하신 원정대성사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창종주 원정대성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원정대성사의 유고집 발간, 각종 세미나, 창종 당시의 수행법 등 다양한 연구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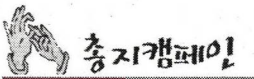
찬불가 음반제작

“찬불가로 부처님 세상 활짝”

청량한 도량에 아름다운 멜로디의 향기로운 찬불가 향기가 그윽하다. 멀리서 들리는 노래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총지종 합창단이 옥구슬 굴러가듯 청아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세상을 노래하고 있었다.

총지종 연합합창단은 지난 2월 17일 전국 합창단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에 위치한 이벤티아 21세기 녹음실에서 총지종 찬불가를 녹음하였다.

이번 음반제작은 ‘찬불가로 불심을 고취시키고, 부처님의 세상을 활짝 열자’라는 의도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음반으로 제작된 찬불가는 3월 중순경 전국 사원에 배포된다. 이번엔 녹음된 곡명은 왕생가, 참회가, 회향가, 오대서원가, 네가지 은혜, 하루동안 행복하면, 자성인을 지키자, 부모 은혜 부부가 화순하면, 밀교삼신, 우리 회사 울린 것, 법신 부처님, 보은노래, 성흔찬가, 조가, 해인절 노래이다. 녹음에 참석한 합창단 단원은 “찬불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는 환희심으로 가득차고, 삭막한 현실사회에서 감로수를 주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한 곡의 찬불가가 위안과 평안을 주어 삶의 의미를 찾아 부처님세대로 제도되길 서원하며, 이번 음반제작으로 찬불가가 대중적인 음악으로 발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의미하는 말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섬김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하나같이 모두가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한자성어로서 새삼스러울 것 전혀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정신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정서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와 닿는다.

얼마 전 몇몇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학생의 성적과 내신관리를 위해 시험답안지를 대리 작성 해주거나 혹은 시험 전에 정답지를 미리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고 그 학부모까지 조사 중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되었다. 또한 모 대학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입학시험의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여 그 대학을 지원한 자신의 아들에게 미리 알려준 사건도 보도 되었다.

일부이겠지만 재력이나 권력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법으로 학교의 내신 성적까지 조작하고 대학입학 문제까지 사전 유출한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학교의 내신등급관리에 대한 불신의 폭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감까지 가지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뼈아픈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국가의 대계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업무의 현장에서 교사를 천직(天職)으로 알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걷는 보통의 대부분 교사들의 명예가, 자신의 세속적 욕구를 위해 교사의 명예를 몇 푼의 재물과 맞바꾼 어리석은 일부 교사와 이에 동조한 비굴한 학부모 때문에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스승은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아야 한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를 구분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명제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기록한 경전 사미유위경(沙彌威儀經)을 보면 “스승을 따라 갈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은 임금과 같은 지위에 있고 섬김에서도 최고의 존종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후시나 사(師)는 이제 군사부일체라는 다섯 글자 중에서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든다.

“나라의 안정과 개인 발전 염원”

상반기 49일 불공, 국가진호불사 입제



상반기 49일불공 입제불사에서 총지종 교도들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발원하는 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종은 지난 2월 19일 전국사원에서 모든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상반기 49일불공과 국가진호불사 입제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49일불공은 4월 8일까지 봉행된다.

상반기 49일불공기간에 국가진호불

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창종 초기부터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 국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대보은사상을 강조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진호국불사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9일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통한 종단운영”

효강 종령예하, 서울경인교구지회 간담회

에 종단 전체가 참여하여 나라의 안위와 조국통일, 그리고 재난불쌍과 산업발전을 염원하여 국가안녕과 발전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국가진호불사를 봉행함에 있어 우승 총리위원장은 “이번 불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을 염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 할 것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국가의 안정과 유지에 이바지할 수도, 그것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 구성체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길이며 그리하여 이 땅에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상반기 49일불공기간에 자녀잘되기과 경제적 발전을 서원하는 불공을 올림으로써 진언수행자로서 자성불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총지종 최고 수장인 효강 종령예하는 지난 1월 29일 총리원 종령실에서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간부보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효강 종령예하가 종단의 사법을 관장하는 종단의 최고 수장으로서 지난 승단총회때 결의되었던 사원의 불단장엄과 의식과 의례개편, 금강계, 태장계만다라의 전국사원보안, 향마염송 등 종단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구하고자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교도들은 종단의 발전방안으로 불단장엄에 대한 각 교구별 설명회 개최,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및 밀교에 대한 교리교육의 필요성, 능인선원의 지광스님과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과 같이 훌륭한 승자가 한 사람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사례를 들며 승자가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 양로원과 요양원의 건립과 타종단과 같은 사회복지의 활성화, 사

원의 유희공간을 명상체험과 선센터의 활용방안, 적극적인 체계적인 교도관리, 방학동안 사원에서 컴퓨터, 영어교실 마련 등 자성학교의 활성화, 공식불공시간 찬불가를 활용하는 방안, 승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개최 등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효강 종령예하는 “앞으로 종단의 사법과 교법을 관장함에 있어 교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우승 총리위원장과 각 부장들과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엄한 도량, 엄격한 계행으로 청정한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교도들이 신명나는 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죽비소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끼가 입 속에 있나니
나쁜 말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스스로 베네

청정한 이를 헐뜯거나
헐뜯을 이를 청정한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결코 좋은 꼴 보지 못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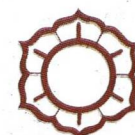
『별역잡아함경, 중에서』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운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비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34년 2월 19일~총기 34년 4월 8일
장소: 불교 총지종 전사원
대상: 모든 불자 및 총지종 교도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아제아제바라아제

설 명절을 보내며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 민족의 크고 오래된 명절 풍습이 어떻게 변해나 하는 것은 온 나라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좁게는 태양, 넓게는 온 우주 기운의 변화가 절기의 변화와 더불어 가는 것이 명절이므로, 이를 맞고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나 문화는 자못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명절 풍습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온 가족이 모이는 기본문화는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명절만큼이나 뚜렷하게 가족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 재세 시에 파사익왕의 아들 유리왕이 카필라국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길로 나가 가지도 잎사귀도 없는 한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답니다. 이를 유리왕이 보고 "있이나 가지나 무성한 나무를 두고 여짜하여 여기에 앉으셨나이까?" 하자, 부처님께서 "진족의 그들은

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 관계를 두터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명절 음식을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 조금씩 역할을 주어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얘기를 나누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자연 덕스러운 말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혀 나온 음식을 최고 어른께서 먼저 잡수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들로 차례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히 예절이 서게 됩니다. 주의 할 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박하거나 지나치게 과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값싸게 할 수 있는 음식 하나라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음과 과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음식이 남아 널려져 있는 것은 복을 깎는 일입니다. 과음은 자칫 지나친 행동을 불러오기도 하여 다툼을 만들거나 예의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결과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덕담을 주로 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 각각의 가족들에게 성취가 있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열심히 노력해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하겠지요. 반면에 자기자랑이나 남 흉보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자랑은 부족함이 있는 다른 가족, 친척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남 흉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남 흉보기를 하지 말고 남에게 용기주는 말 불교인은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



시원 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를 낳았다.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고 말씀하시어 전쟁을 막으셨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명절이 되어 흠어진 가족이 모일 때가 되면 '나는 친족의 그들이 서늘하다고 느끼며, 나 스스로 가족에게 서늘한 그들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게 됩니다. 이번 설을 보내면서 명절에 가족, 친척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더 나은 가족, 친척관계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과 가려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 세 가지만 여기 적어봅니다.

먼저, 음식과 관련된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아직 제사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사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중요한 듯합니다. 식구

자격지심이나 반발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남 흉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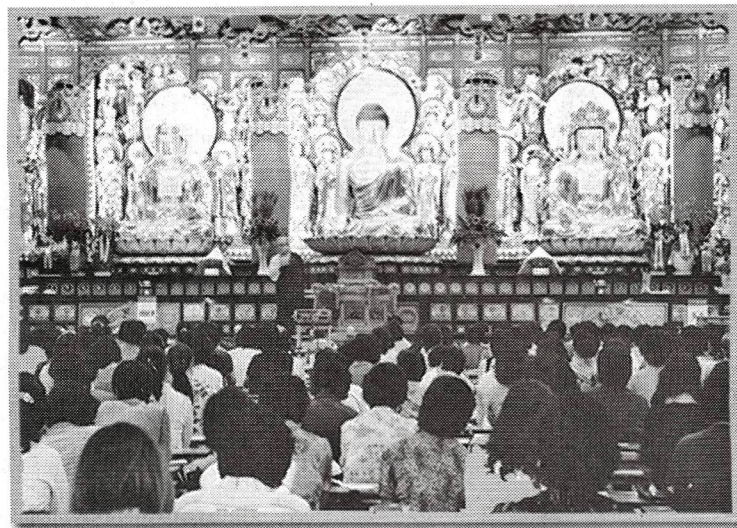
셋째는 가족공동체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를 한 가지 정도는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적대심을 빼놓고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놀이에서 역할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놀이 중에서 윗 놀이가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불교인으로서 이웃과 인사하고 나누는 일이라든가, 사원을 찾아 율체의 서원을 세우고 참배하는 것들을 하면 더더욱 좋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처지를 잘 살펴 가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인은 어느 종교인, 어느 가족구성원보다도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윤남진/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포교프로그램

신흥 5개 대형사찰의 성공비결 연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기룡 박사가 신흥 5개 사찰,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 스님)와 능인선원(주지 지광 스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스님),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회주 우학 스님),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스님)을 연구, 분석한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박사 학위

논문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신흥 5개사찰의 성공요인으로 5개 사찰의 공통점은 교계 안팎에서 인정하는 결출한 스님, 부처 석왕사(주지 영담 스님),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회주 우학 스님),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스님)을 연구, 분석한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박사 학위

천태종, 개성 영통사 순례사업 시행 6.15일 전후 영통사 낙성법회보행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지원해 온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2월 1~3일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 경제협력위원회 산하 영통사복원위원회회장과 회담을 갖고, 남측 불자들의 영통사 순례사업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난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영통사 낙성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또 낙성법회에 앞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과 영통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영통사 복원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천태종과 영통사복원위원회는 이같은 협의의 사항을 원칙적 수준에서 구두 합의하고, 지속적인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 시행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천태종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영통사 진입로에 10만 구루 통일나무심기운동은 문서로 합의,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

북측 영통사복원위원회와 베이징 회담을 마치고 2월 3일 오후 귀국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남측 불자들의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해 북측도 긍정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영통사복원위원회 김

성으로 꼽고 있다. 5개 사찰 모두가 신문이나 회보를 발간해 사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자들이 어떤 형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가를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구룡사와 능인선원의 경우 신도회가 직접 사중 회의에 동참해 사찰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도록 해 사찰의 주인이 곧 불자라는 주인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화, 전법 활동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교화 마케팅'이라고 부를 만한 프로그램으로 전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5개 사찰은 '지역 특성에 맞고 시대의 흐름에 꼭 맞는'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아마도 부천에서 서울 강남에 적합한 포교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나섰다던 석왕사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역과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포교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신도 조직 운영은 각 지역의 신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능인선원이나 한마음선원, 구룡사는 한달에 한 두 차례씩 정기적

으로 같은 지역의 불자들이 특정 불자의 집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구역, 법동, 가정 법회 등 지역법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 교육 시설 등 신흥 대형 사찰에는 없는 게 없다.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백화점 같은 도량이다."

이들이 창건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 신흥 사찰들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시설에서부터 탁아방이나 장례식장, 장애인 복지관, 문화관, 선방 등 초상자나 새 신도,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다. 사찰 산하의 복지 시설들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동체대비 정신을 구현하는 실천 도량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기룡 박사는 "신흥 대형 사찰의 출발선상에는 기본 신앙을 작복 신행으로 바꾸기 위한 철저한 신도 교육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내가 바로 이 사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불자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포교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신흥 대형 사찰의 성공에 큰 힘이 됐다"고 분석했다

진각종 위덕대 '경주문화콘테츠, 불교축제' 심포지엄 불교문화연구와 연등축제 발전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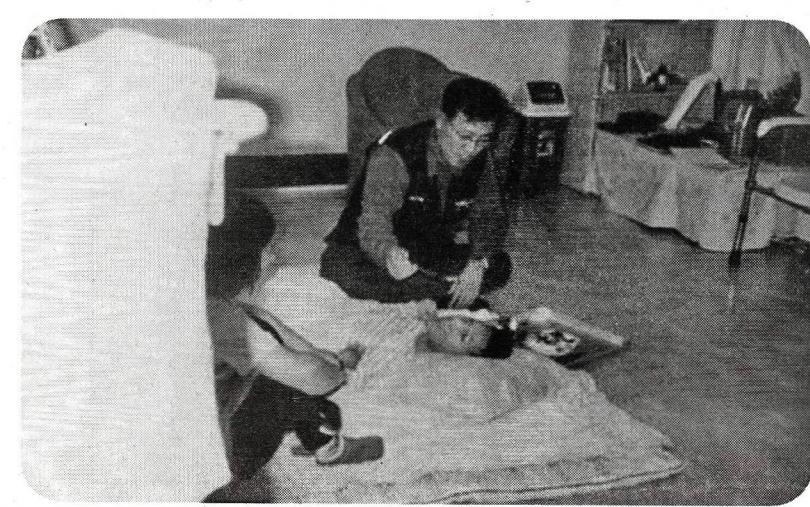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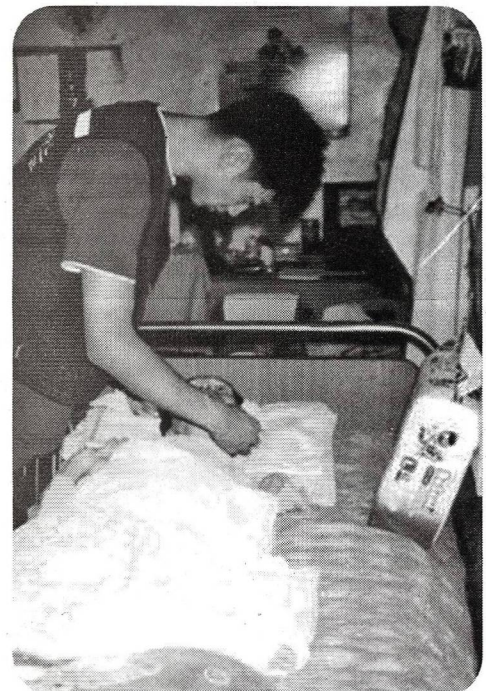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는 2월 25일 교내 공덕관 4층 지역혁신센터에서 '경주문화콘테츠·불교축제'를 주제로 2005 인문콘테츠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1부는 △경상북도의 문화콘테츠산업 정책(발표:경상북도 황인동 문화예술과장) △SODO의 CT산업과 문화원형, 경주 사례를 통한 Solution과 Application(발표:ESODO 김진희 대표)을, 2부는 △한류의 중심 '겨울연가'의 문화콘테츠,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한국외대 백승국 교수) △불교 축제의 새 모델 연등축제-지역 축제의 대안 모색(호서대 안이영 교수)을 각각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경주 불교문화콘테츠의 새로운 기획과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인문콘테츠학회 부회장 김기덕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한편, 지역불교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연등축제의 활성화를 제시한 안이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통등이 갖는 국제적 보편성이 크데다, 전통등연구 및 제작의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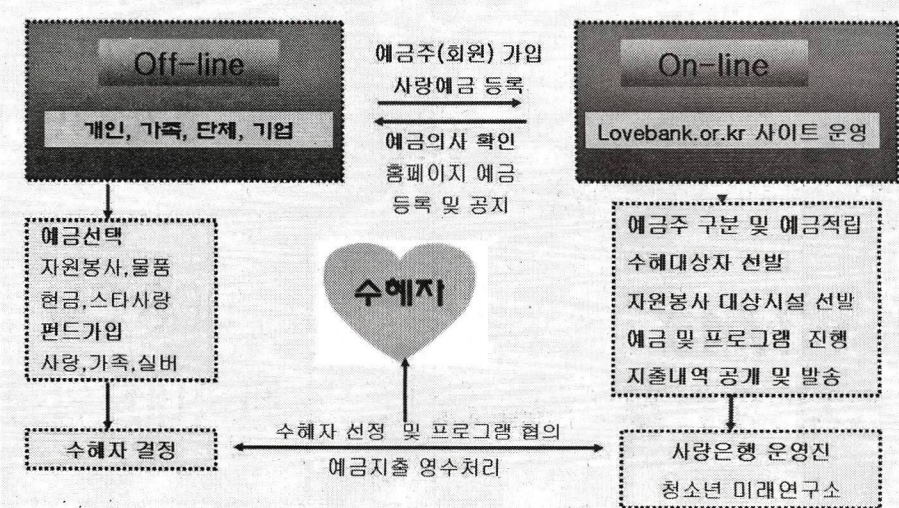
그러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어, 참여하는 단체와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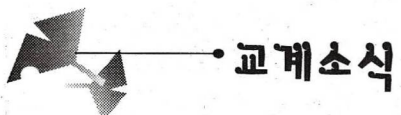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교계소식

금강산에 '불자수련원' 건립

현대아산 김운규사장, 금강산 4대사찰 복원

현대아산이 금강산 신계사 인근에 불자관광객들을 위한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아산 김운규 사장은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 5월을 '불교의 달'로 정해 신계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신계사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불자수련원은 8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컨테이너로 만든 숙소 1동(600~800여명 수용 가능), 기도원 1동, 기념품점 1동, 사무실 1동, 식당 1동, 기타 부속동 1동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아태측과도 이야기가 됐다"며 "조계종에서 조선불교도연맹에 협조를 구해준다면 큰 힘



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28일 금강

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여연·사서실장 심경·사회부장 지원·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 김운규 사장 부인 최옥자씨 등이 배석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확대를 통해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의 사찰복원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배정방식 희망종교 반영

기독교 28개, 불교 3개 학교

올해부터 서울 시내 인문계 고교 진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종교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새제도 시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보관실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교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해는 급간을 3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이 불교계 종교학교에 호재로 작용할지 약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서울시내 1백 97개 인문계고교 구성비(기독교계 28개, 불교계 3개)를 고려하면 수치적으로 우세한 기독교계가 그만큼 많은 입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불교계 종교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에서 열리는 회의 때 친서를 써 주겠다"며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신계사 인근인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로 건립하며, 故 정주영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기념관과 비석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가 앞장섰다"며 "신계사 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때 총무원장 스님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달라'고 말씀해줘 큰 힘이 됐다"

불교복지 연구소설립이 발전의 관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평가



불교계에서 가장 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법인허가 10주년을 맞아 불교계 복지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80년대부터 대두된 불교복지단체 설립 필요성에 의해 구성돼 그동안 정부로부터의 시설 위탁과 봉사자 양성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복지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5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던 복지재단 산하시설이 2005년 현재 94개소에 이르며 불교계 위탁시설은 450여 곳이다. 이는 종교 복지의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천주교와도 규모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자원봉사자 양성 규모도 현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만 1500여명이 투입돼 있고 매년 300명씩 새로운 봉사자가

생겨나 복지 인적자원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고 오는 7월까지의 정부 시책에 따라 모든 미인가시설을 법 인화해야 하는 등 복지환경 자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복지재단도 이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기르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재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복지원' 설립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복지재단에는 연구위원회만 구성됐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전무한 상태다.

조계종 종단문장 '삼보륜' 특허청 등록

'조계종' 증명, 업무표장 독점사용

대한불교조계종 大韓佛教曹溪宗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도용 종단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증명, 업무표장 독점사용을 완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증명, 업무표장 독점관리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계종'에 대한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종단 문장은 '삼보륜'이다. 삼보륜은 불, 법, 승 삼보와 계, 정, 혜 삼학을 상징하는 세

집과 일원상을 상징하는 두터운 원을 결합해 만들었다.

증명의 한글 표기는 '석보상절'의 목판본에서 집자했고, 한자표기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글씨체를 기본으로 삼았다. 영문표기는 'Trebuchet MS'의 볼트체를 사용했다. 종단 문양의 전용 색상은 칼라일 경우 가사색과 금색을, 흑백일때는 검정색으로 확정했다.

총무원은 '이번에 확정된 종단문양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미 1차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교구 본말사 등 종단 등록사찰과 단체의 공식문양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함경 이야기

천한 사람 ②

지금 보다 더 못살던 옛날에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부모, 형제간의 의리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거기가 재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심성이 이렇게 메말라 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형제, 남매간에 반목과 질시가 성행합니다. 부자간에도, 동기간에도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서글픈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유산 다툼 때문에 동기간에 찬바람이 도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사람도 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성자가 아니면서 스스로 성자인 것처럼 떠드는 자는 천계와 인간계의 도적이야. 이와 같은 자는 실로 가장 천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천한 자를 성자가 아니면서 성자인 체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깨치지 않았으면서도 진리를 깨쳤다고 외치는 사람을 하느님

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출생에 따라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성자가 된다.

말하자면 천하고 천하지 않은 것은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진정한 평등을 말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종이나 태어난 지역, 혹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인간의 귀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귀천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나 피부색에 의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편견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의 값이 매겨 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야지 태생이나 현재의 지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에 의한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잊기가 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천한사람, 성자가 된다

부처님의 법은 어둠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등불

속이고 인간도 속이는 가장 천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도 지금과 같이 종교적 사기꾼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 세상에 도 성자인 체 하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불교는 그나마 달한데 타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한치 앞의 자기의 앞날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신도가 구름같이 물리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그런 천한 사람들을 보고 물리는 사람들도 같이 천하기 때문에 그런거나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신도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외국에 호화 별장도 사고 때로는 의화를 팔래 빼내다가 사회의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거짓 성자에게 속아서 안 되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지혜가 깨졌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불교를 앞장서서 배척하고 있으니 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드바자라는 그 바라문은 드디어 귀가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좀 있었던 바라문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묘한 일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예를 들면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이, 가려져 있는 것을 벗기시는 것과 같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놓는 자는 보라고 하시듯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나타내어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재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께 귀의할 때에 흔히 쓰던 말입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하나의 정형구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마가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하셨습니다.

(화령정사/법원장 연구원)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방송 강좌 안내

- ▷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 ▷ 방송시간 : 오전 6시 5분 ~ 6시 25분 / 오후 9시 5분 ~ 9시 25분(재방)
- ▷ 강사 : 화령 정사
- ▷ 방송기간 :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청주 FM 96.7MHz
	부산 FM 89.9MHz	춘천 FM 100.1MHz
	광주 FM 89.7MHz	안동 FM 97.7MHz
	대구 FM 94.5MHz	포항 FM 105.5MHz

풍경소리

행복이 자리하는 곳은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든 한 송이 꽃에도 눈길을 보낼 수 있을 때 결인의 차가운 손을 외면하지 않을 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작은 행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 이용범/소설가

열심히 하다보면

목장 주인이 되기를 꿈꾸는 청년이 소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때 외양간 앞을 지나가는 노인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소가 수십,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 이 좁은 외양간으로 어떻게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보게, 강을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배가 필요하지요." "자네는 지금 배도 없는데 어찌 강을 건너려고 하는가? 할 일을 먼저 하게. 자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은 자연히 얻어질 것이네." - 박민호/이동문학가

할머니의 눈물

장거사의 딸 설이는 일찍이 마조스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다. 그 후 가정을 이루어 다복한 노파가 되었건만 갑자기 사랑하는 손녀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애통해 하며 목놓아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도(道)를 통했다는 사람도 별 수 없군.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할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데..... 무엇이 달라져야 한단 말인가. 일부러 구분 짓지 마시게. 분별심이 다 망상(妄想)이려네.' - 맹랑자/수필가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

외부의 적은 영원하지 않다. 적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면 금세 친구가 된다. 하지만 내면의 적은 영원하다. 내면의 적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 적은 마음속에 동지를 틀고 산다. 때문에 이 모든 나쁜 생각들과 당당히 맞서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 달라이라마(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중에서

이달의 명상

아상이 없어진 자리가 해탈의 자리

『금강경』에 의하면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떤 상(相)을 갖지 말고 하라. 상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수행의 완성은 먼저 아상(我相)을 없앨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상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이로 인해 업을 짓고 해탈과는 반대되는 길을 재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이외에 인상·중생상·수자상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상만 없어진다면 세가지 상은 곧 동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아상이 없어진 그 자리는 바로 해탈의 경지인 것입니다. '나'라는 그것이 없어진 바로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며, 그 자리가 피어난 곳에 너와 내가 없는 불이(不二)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해탈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이타(利他)수행을 겸한 그 자리가 불성이 발현되는 것이요,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경전에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아상을 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해인(海印)삼매에 의해서 비로자나부처님이 세계가 현상하고 그것을 화엄 삼매에 의해서 현실의 사람들에게 보이며 구제하는 사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0가지의 그림을 통해 수행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십우도(十牛圖)도 그려합니다. 십우도는 마음의 번뇌를 조복받고 잘 다스려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과정을 10가지로 그린 것입니다. 이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入纏垂手)'는 깨달은 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편안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속계로 나와 중생에게 이타행을 펴고,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슬로건이 자리아타이지만 그 자리의 완성을 곧 중생에게 돌리려 하므로 대승불교에서는 서원을 중시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기도를 끝내는 것을 '회향(回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내 기도를 공덕을 내 주위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중생, 더 나아가 우리 조상과 구전에 떠도는 불쌍한 영가에게 그 공덕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기준점을 깨고 아상을 버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 수행했던 화살을 이제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한 진정한 해탈의 길이며, 다름의 진정한 실천인 것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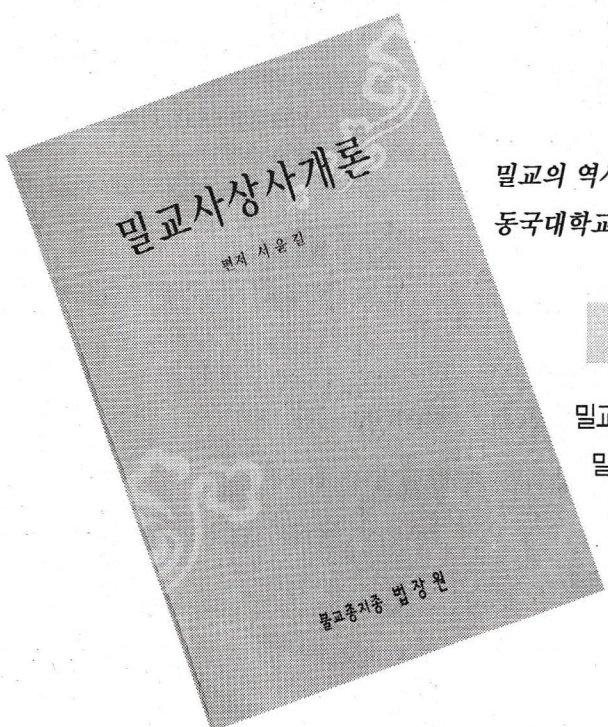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8화~

글:그림/정수일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Panel 1: "고집멸도" 사제중의 "도"는 인생의 어려움인 "고"를 없애주는 실천방법입니다. Panel 2: "그 말씀이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요! 대성사님." Panel 3: "쿨럭! 쿨럭! 아이고, 콜라 마시다 숨 넘어 갈 뻔했네." "헤헤헤... 그러니까 복권이나 사라 가시죠." Panel 4: "그 방법은 '팔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팔정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 첨 듣는 섬 이름인데요?" Panel 5: "천성산 지키는 것도 어마 어마하게 힘들던데..." "맞아, 힘들겠어. 우리같은 사람은 포기해야겠군." Panel 6: "하하하... '팔정도 (八正道)'란 섬 이름이 아닙니다. '팔정도'는 '팔성도(八聖道)'라고도 말합니다." "앗! 전화다. 지켜워 지려던 참인데 마침 잘 왔네." "네? 뭐라고요! 헛집 팔정도 아니냐고요?" Panel 7: "오잉? 다들 어딜 가셨나?" "우리는 정수면 중입니다 쿵쿨쿨..." Panel 8: "팔정도"란 여덟가지 올바른 지킬 도리로서 인생의 고를 벗어나는 방법 즉,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여덟가지는 1)정경 2)정사유 3)정어)4)정업 5)정명 6)정정진 7)정념 8)정정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Panel 9: "우리는 정수면 중입니다 쿵쿨쿨..."

정수일홈피 http://home.paran.com/octagonp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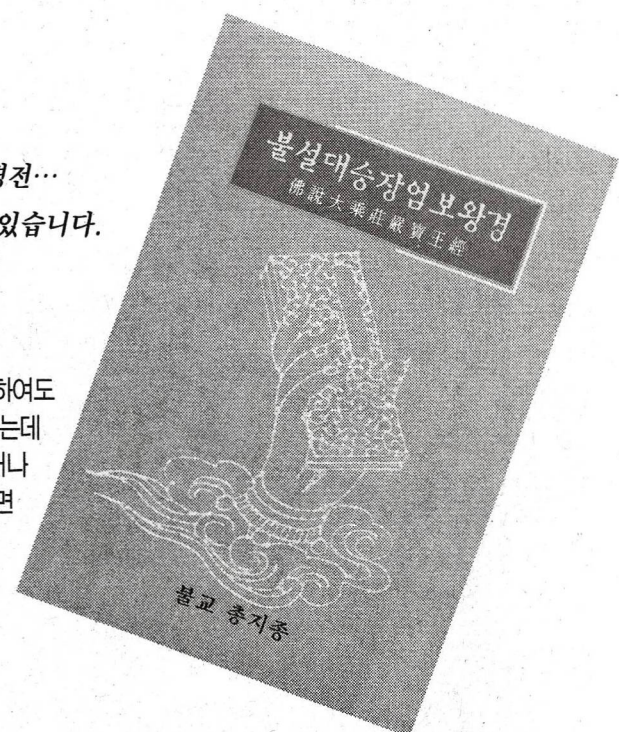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월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홍>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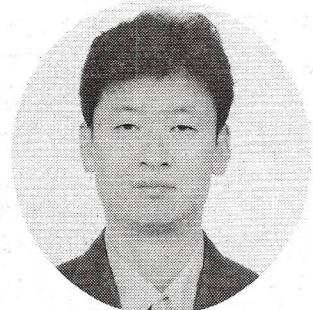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 칼럼

공부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



〈김종인〉

-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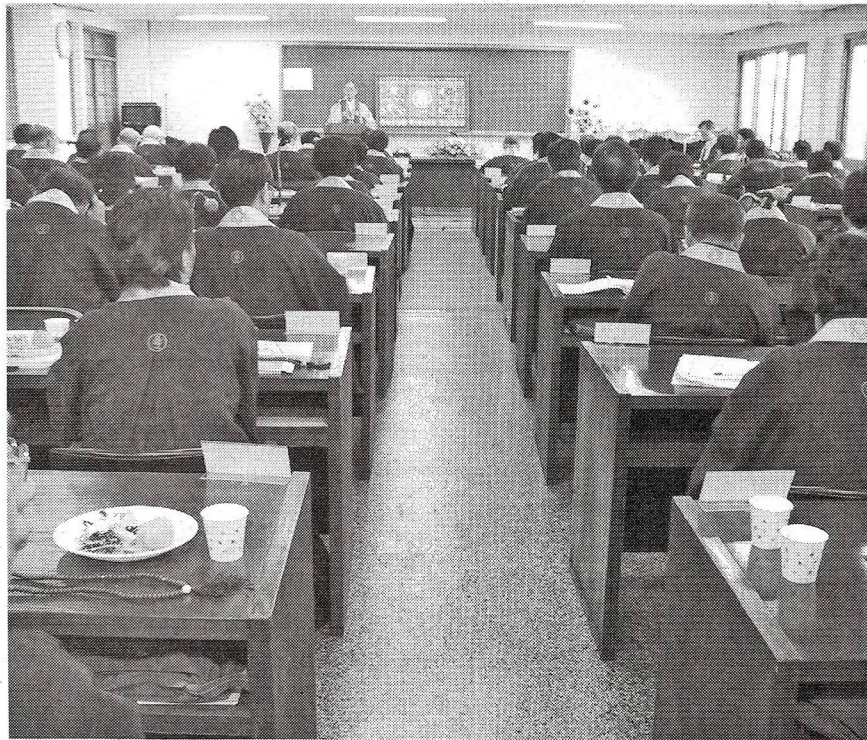
불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점이다. 불교 역시 믿음을 중시하지만 불교에서의 믿음은 절대

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즉 깨달음을 통한 믿음이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불교를 이성적 종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불교는 이성적 자각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교인들은 언제나 열심히 공부해왔다. 팔만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논서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국불교는 선불교가 지배해 온 탓에 문자를 통한 공부보다 참선 수행이 더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경론을 통한 공부를 가버릴 수는 없다. 경론을 통한 공부야 밀반침되지 않는 참선은 수행자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우게 할 따름이다.

경론을 통한 공부는 일반 불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불교 신도들은 과거와 달리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들 한글을 깨쳤음은 물론이요, 상당수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이들이다. 과거처럼 경론의 지식이 승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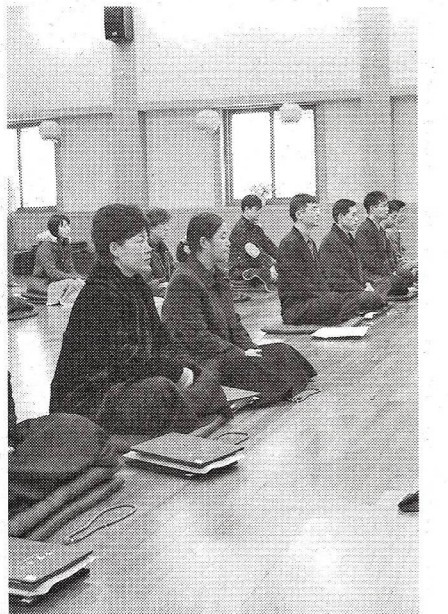


인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또 이들 대학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실제로 불교의 도심 포교는 전적으로 이들 다양한 형태의 불교 대학에 의존하고 있다. 도심 포교에 성공한 사찰은 곧 불교 대학의 운영에 성공한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그 본질적 성격 때문에 교육과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포교할 수 없는 종교이다.

총지종은 이 점에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사회 속에서의 불교를 내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총지종의 교세가 30년 전에 비해 도리어 위축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교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교화가 안 된 것이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총지종은 훌륭한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엄한 의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독자적인 신문, 잡지, 혹은 첨단 방송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총지종의 교세의 성장을 결코 바랄 수가 없는 일이다.

신도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할 스승들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 스승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불교는 진리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통한 믿음 교육과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포교할 수 없다 스승들과 교도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교세확장

들에게만 전수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일반 신도들은 대개 문맹일 뿐 아니라 학습할 시간도 없었지만, 오늘날은 학습 능력과 시간 모두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 불교의 교세가 외래 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도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지 못 한 것이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 승직자들은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우수한 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반 교도들에 대한 교육은 태만히 하였다. 반면에 외래 종교인들은 신도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다. 어린이반, 청년반, 노년반 등등의 학습반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시켰다. 오죽했으면 "주일학교"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이렇게 전 교도들을 학습시킨 결과 그들은 모두가 훌륭한 전도사들이 되었다.

외래 종교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졌지만, 불교계에서도 근래에 다양한 불교대학이라 일컬어지는 학교를 세워서 불교

총지종에는 교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매주 법회가 있지만 반복적인 진언연습이 법회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설법만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일부 교도들이 타 종단에서 운영하는 불교 강좌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의 설법으로는 교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승들이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공부할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습할 내용들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총지종의 스승들 모두는 맹렬한 학습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총지종의 전 사원에는 불교학교가 서고 교도들이 교리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종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인터넷 중독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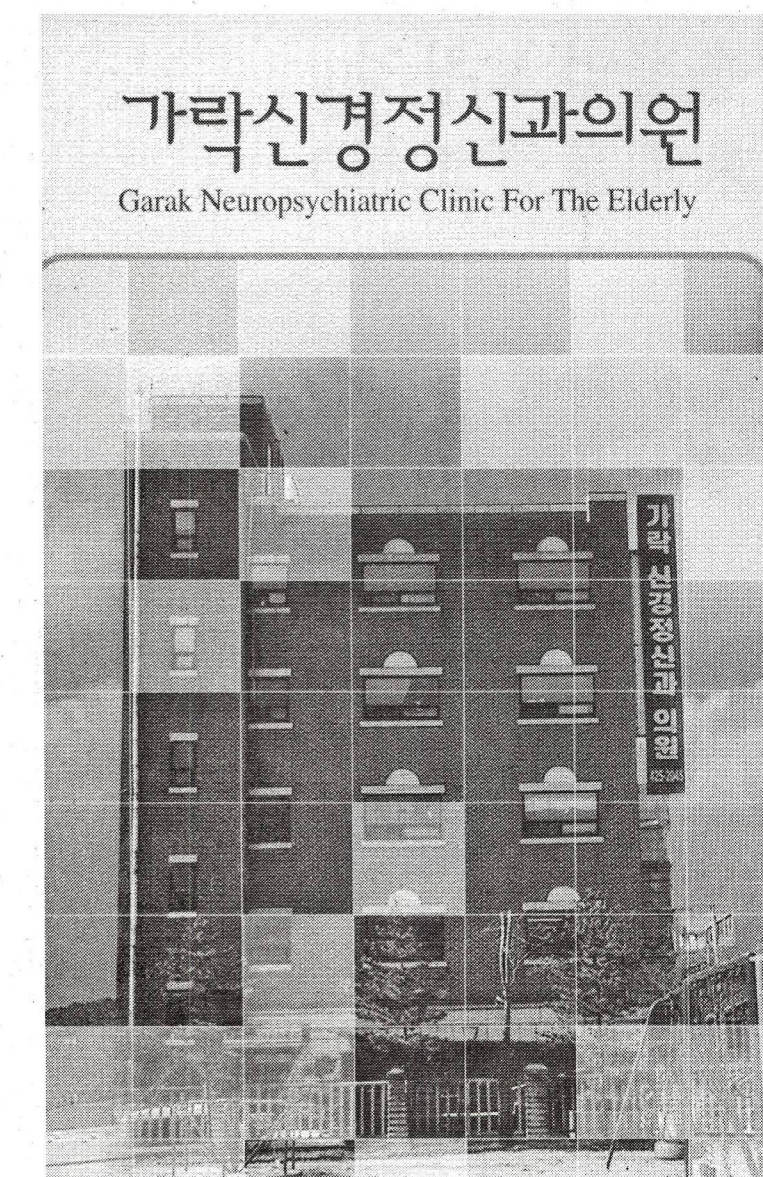
각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여, 혹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정서 발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80%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오직 게임만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런 경향이 심해 정보, 통신 등의 비교적 건강한 쪽 보다 게임에 몰두하는 유형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어디까지가 여가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을 하느라고 학업이나 교우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중독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인터넷중독의 기준을 발표한 것입니다. 8가지 문항 중에서 5가지 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근의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

- 는 것이 좋습니다.
1. 항상 인터넷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2.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해야 합니까?
 3. 인터넷/통신 사용을 조절하거나 끊거나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십니까?
 4. 인터넷/통신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5. 인터넷/통신을 사용하는 시간을 더

6. 중요한 인간관계나 직업, 교육, 경력상의 기회가 인터넷/통신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7. 자신이 인터넷/통신에 빠져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8.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통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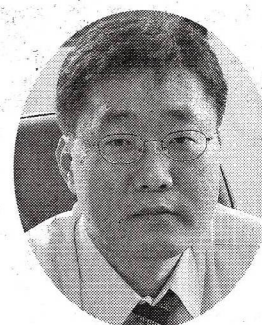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가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점진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진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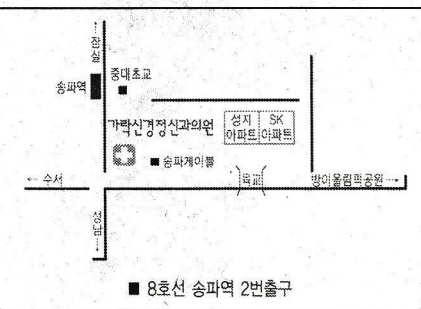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4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피엽의보살(被葉衣荳薩) ·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과 적유명보살(寂留明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피엽의보살(被葉衣荳薩)과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피엽의보살(被葉衣荳薩)

이 본존(本尊)의 범어명칭(梵語名稱)은 전통적(傳統的)으로 '파라사·바리·(Palasavali, 파라·사)의 잎을 걸친 자'라고 전해졌으나, 근래의 연구결과로 '파르나(파라·사)의 잎을 걸친 사바리족의 여성'이라는 의미인 '파르나·사바리'라고 결론이 났다. 사바리족은 산악민족으로, 농경문화를 형성한 인도에서는, 그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크게 무서운 존재였다. 그 때문에 원래는 분노존의 성격이 농후했는데, 일본에 전해진 밀교계통에서는 유화한 관음(觀音)의 모습만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엽의보살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

이 백신관자재보살은 말 그대로 흰색을 띠고 있는 관자재보살이다. 신체(身體)가 하얀 것은 맑은 대비(大悲)의 공덕(功德)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대비심(大悲心)에 의하여 중생(衆生)을 널리 교화(教化)함으로 인해 밀호(密號)를 보화금강(普化金剛)이라고 한다. 이 보살의 범어(梵語) 명칭(名稱)에서 유추하건대, 복(福)을 불러오는 여신(女神)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보화금강(普化金剛)이다. 삼매야형은 개합연화(開合蓮華)이다. 완전히 피어난 연꽃모양이다. 존형(尊形)은 천황색(淺黃色)으로 왼손에 개합연화(開合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세우고 세운 팔꿈치를 오른 쪽 무릎에 대고서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붉은 연꽃 대신에 백연화(白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백신관자재보살

또 『불공경색경(不空羼索經)』에는 이 본존(本尊)이 백연화(白蓮華)를 손에 들고 반가부좌(半跏趺坐)로 앉아 있다고 설(說)하고 있으나, 현도만다라(現圖曼荼)

피엽의보살은 무서운 존재였으나 밀교에서 유화한 관음상
백신관자재보살은 대비심으로 널리 중생을 교화한 보화금강

며, 삼매야형은 미개연화장(未敷蓮華杖)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왼손에 견색(羼索),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왼쪽 무릎을 세우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오른손으로 여원인(與願印)을 맺고, 왼손에는 견색(羼索)을 들고 있다.

견색은 새와 짐승을 잡는 도구로 일종의 락을 가라키는데 밀교에서는 이것을 불보살이 중생을 섭취하는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보살의 진언은 '옴 하라타사바리 흠 핫트'이다. 뜻은 '옴! 연의(葉衣)여! 흠 핫트'이다.

羅)에서는 손에 든 연화(蓮華)가 적연화(赤蓮華)로 되어 있다. 결인의 모습(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을 맺고 있다.

이 보살의 진언의 앞에서 공부했던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生菩薩)'의 진언(眞言)과 같다. '나막 사만다 보다남 기사타 라 엔 켄 사바하'이다.

또 달리 이 보살의 진언을 '옴 마카한트메 씨베이탐케이 고로 고로 사바하'라고도 한다. 그 뜻은 '옴! 커다란 연화(蓮華)여! 백신(白身)이여!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동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불교수행과 연기(緣起)의 이해

▶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원리를 불교에서는 연기성(緣起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체 존재는 연기(緣起)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 연기를 여러 가지 교설로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가 업감연기(業感緣起)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중생의 업(業)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 인간관이다. 중생과 세계는 중생들 제각기의 업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기 뜻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신구의 활동, 삼업이라는 활동의 업력에 의하여 모든 결과가 일어난다. 업의 결과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생과 세계가 천차만별인 것은 바로 지은 업(業)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력(業力)에 의하여 과보를 일어날 때 까지의 그 업력은 어디에 존재해 있는 것일까? 그 설명은 바로 유식불교(唯識佛敎)에서 말하는 아뢰야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식이란 '오로지 식(識)만이 존재한다'는 사상인데 업력과 그 과보의 존재가 아뢰야식에 있다는 설명이다. 육식(六識) 이외에 아뢰야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업력은 종자(種子)로써 아뢰야식 중에 보존되어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다시 현생(現生)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체현상은 중생 각자의 아뢰야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명(無明)이다. 바른 지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과보이다. 그래서 그것을 망식(忘識)이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명(無明)과 망식(忘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행을 일러 우리는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부른다. '망식(忘識)을 돌리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망식에 의한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 연기설이 '진여 연기설(眞如緣起說)'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에서 중생의 본체(本體)가 진여(眞如)이며 이 진여가 연(緣)에 따라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진여연기(眞如緣起)로 이어진다. 그러면 원래부터 불성(佛性)을 갖추고 있는 우주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화엄사상(華嚴思想)의 법계연기(法界緣起)이다. 법계의 사물이 천차만

별하나 피차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만유(萬有)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십현연기(十玄緣起)이다. 현상계 모두가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연기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우주는 인드라망과 같이 중중제망(重重帝網)으로 존재해 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관계이므로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라고도 한다. 이 사상을 설명한 것이 앞의 십현연기와 함께 육상원융(六相圓融)을 들 수 있다.

육상(六相)이란 총상(總相)·별상(別相)과 동상(同相)·이상(異相), 성상(成相)·괴상(壞相)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대비되는 세상의 개념, 모습은 서로 원융무애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 하나가 다른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여섯이 그 나름의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법계연기가 성립한다는 교설이다.

▶ 밀교에서 서로 연기해 있다는 교설은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이다. 지수화풍공식의 여섯가지 요소가 삼라만상을 이루며 이것이 연(緣)하여서 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육대를 체(體)로 하여 삼라만상이 있게 되니, 바로 법신불(法身佛), 비로자나부처님의 세계이다. 이를 교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밀교의 '만다라'이며 그 이론은 화엄의 법계연기와 육상원융의 연장선상에 있다. 수많은 불보살은 서로 상관적 인과관계에 있고, 그 모습은 육상원융이다. 나눠보면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요, 하나로 보면 비로자나부처님의 세상이다.

▶ 나와 내가 연기해 있으므로 우리는 우주요, 만다라이다. 서로가 관련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다른 이를 나와 동일시하고 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눠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이다. 남을 배척하지 말자.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말자. 모든 이를 보듬을 수 있는 그것이 되도록 하자. 진언행자는 말이다.

(법경/사무국장 겸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 홀자오인은 '홀'이라는 진언종자를 중생 자신의 몸 가운데 포치(包置)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왼손으로 금강권을 하고 마음 속으로는 홀자를 관하면서 오른손을 이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슴, 인후(咽喉)에 인장(印章)하는 '삼밀유가법'이다.

이 홀자오인은 모든 진언수행을 마칠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언수행을 통해 불(佛)과 중생(衆生)이 상응(相應)하여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홀'은 부처님의 광대한 금강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홀'자를 지송하는 것은 행자 자신의 마음이 불신(佛身)에 안주하여 금강견고의 지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서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홀자오인으로 광대한 진실삼매의 다섯가지 공명이 발현되어서 일체지를 이루고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되는 것이다.

'홀'자의 의미는 '대일경'과 『금강경』에서, '홀자오인'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설하고 있다.

'홀'자는 공덕을 나타내는 종자로서 '일체죄업의 최파(摧破)'를 뜻하며 모든 교의(敎義)는 이 일자(一字)로써 거둔다고 한다. 『반야이취서』에 '홀자는 인(因)의 뜻이고, 인(因)의 뜻은 보리심이 인(因)이 됨을 말함이니, 곧 일체 여래의 보리심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홀자는 진여 그 자체가 무수히 많은 공덕이 모두 이것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또한 『육자대명왕경』에서는 '홀자는 갖가지 미묘한 뜻을 총괄하는 것이며, 재물, 호신, 성신이 대중을 옹호하며 악마사신을 항복받고 재앙을 소멸시킨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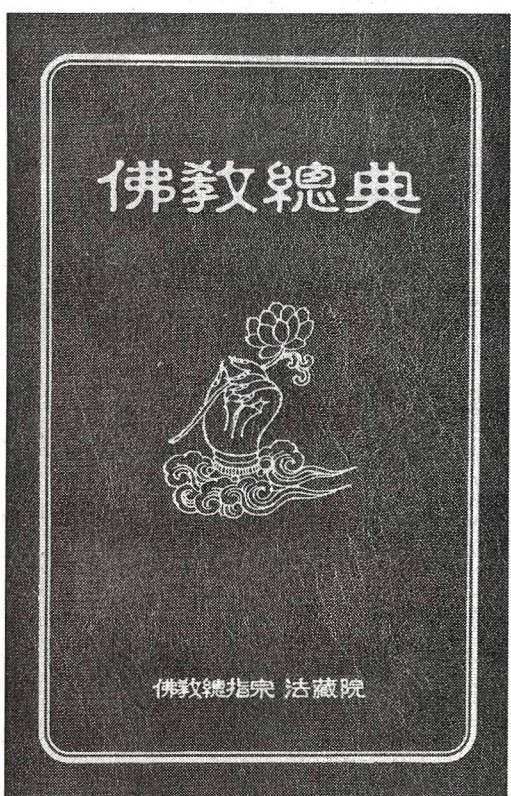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敎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교(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일원주의(一元主義) 유교(儒敎)가 주인(主人)이 되었을 때 같이 대우(待遇) 받던 불교(佛敎)는 따라서 일원(一元)을 세우자니 의뢰적(依賴的) 방편(方便)으로 등상(等像)을 주(主)로 하였고 이원주의(二元主義)인 예수교가 주장(主張)이 되어 이 때에 벗어날 불교는 자주적(自主的)이원(二元)을 세우자니 등상(等像)을 여하고 자기(自己)의 성품(性品)이 부처됨을 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2. 사람이 사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악(惡)으로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선(善)으로서 사는 길이라 악으로서 사는 사람은 악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악으로서 살게 되고 선으로서 사는 사람은 선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자연(自然)히 선으로서 살게 되니 사람은 꼭 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길 드릴 것이니라.
3. 선에 두 길이 있으니 한 길은 유교(儒敎) 방법(方法)으로서 행하는 착함(德)이요 또, 한 길은 불교(佛敎) 방편(方便)으로서 행하는 착함(德)이요.
4. 같은 교(敎)로서 선(善)에 나아가되 유상(有相) 무상주의(無相主義)가 달라서 방편(方便)이

- 같이 아니하므로 일원(一元) 이원(二元)으로 나누어지게 됨이라. 일원주의(一元主義)는 모 나게 살았던 것이요, 이원주의(二元主義)는 동글게 살려는 것이다.
5. 현실(現失)로 잘 도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도움 받음이 많고 진리(眞理)로서 잘 도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도움 받음이 많으니라. 이 우주(宇宙)에는 내가 아는 사람은 적고 모르는 사람은 많으니 아는 사람 도움이 크겠느냐 모르는 사람 도움이 크겠느냐 현실로써 도움이 크겠느냐 진리로서 도움이 크겠느냐 유상(有相) 보시(布施)는 과보(業報)가 적으므로 백천만배(百千萬分)의 하나를 받게 되니 더디고 무상(無相) 희사(喜捨)는 과보가 크므로 백천만배(百千萬倍)를 받게 되니 속(速)하니라.
6. 심인불교(心印佛敎)는 죽어서 극락(極樂)가는 방편(方便)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삼보불교(三寶佛敎)가 죽어서 극락 가는 방편으로 교화(敎化)하여 가므로 세상(世上)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 쓰지 않는 심인불교에서도 잘 깨닫게 되며 삼보불교는 살아서 안락 되는 방편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심인불교가 살아서 안락 되는 방편으로 교화하여 가므로 세상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 쓰지 않는 삼보불교에서도 잘 알게 되니 이와 같이 표면(表面)은 서로 다르나 의면은 유익(有益)함이 되니라.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우주(宇宙) 전체를 포교(布敎)하는 대불교(大佛敎)가 되지 못하니라.
7. 유(有)에 인(因)을 지어서 무(無)의 과(果)를 받고 무(無)에 인(因)을 지어서 유(有)의 과(果)를 얻느니라. 유상불(有像佛)을 공양(供養)하면 극락이 먼 지라 래세(來世)에 더디 과를 받고 무

상불을 깨쳐 알면 극락이 가까운 지라 현세에 곧 과가 있느니라.
8. 사람이 착함을 알아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죽어서 내세에 복과(福果)를 받아도 작고 사람이 착한 것을 몰라서 칭찬(稱讚)을 받지 않으면 곧 살아서 현세에 복과를 받아도 크니라.



사람이 먼저 배우고 모르게 되면 심인(心印)이 먼저 배우게 되느니라.
11. 인 지어서 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부처의 원측(原側)이라.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과를 받고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고 선

않는지라 그의 근본이 나에게 있으니 나무와 돌과 물과 불 다른 곳에 빌지 말고 나의 심인에 참회하고 서원(誓願)하여 보라. 그 결과 백배 천배 만배가 되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13. 선악(善惡)을 물론(勿論)하고 어두운 어떠한 곳에서도 자기(自己)의 심인(心印)을 모르게 할 수 없느니라.
14. 현대(現代) 사람이 도덕(道德)을 몰라서 실행(實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주로 하는 철학(哲學)으로 많이 알아도 자기로서 행하지 못하고 가까운 부모 처자 형제 친척에게도 실행케 못하는 것은 현대(現代) 문명인(文明人)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철학(哲學)은 물(物)을 사용(使用)하는 데 필요(必要)한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도구(道具)요 실천(實踐)함을 주(主)로 하는 철학(哲學)으로 많이 깨닫는데 자기도 실천하고 처자 형제와 친척 타인(他人)에게 까지 실천(實踐)케 하는 것은 현재 심인교도(心印敎徒)로써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 철학은 종생(衆生)을 교화(敎化)하는 데 필요(必要)한 정신문화(精神文化)의 도구(道具)이니라.
15. 삼보불교(三寶佛敎)를 숭상(崇尙)하는 사람(寺刹)은 정엄(莊嚴)한 위엄(威嚴) 앞에서 감히 악을 행할 수 없는 순수(淳厚)한 시대(時代)에 어린이 방편으로 악과가 더더욱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인불교는 심인을 깨쳐 인과(因果)를 알게 함으로써 홀로 어두운 곳에서도 악을 행할 수 없는 어린 방편으로 칭찬(稱讚)을 받지 않아도 선도에 나아가느니라.
(자료제공:총학연구소)

무상희사는 과보를 백천만배 받게 된다

인 지어서 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과 부처의 원측

9. 사람이 도우는 것은 아는 이만이 배우게 됨으로 범위(範圍)가 작고 심인(心印)이 배우는 것은 천지인(天地人) 만물(萬物)이 다 배우게 됨으로 범위가 크고 넓으니라.
10. 인 지어서 과 받는 길이 있으니 알게 되면 한 인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고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달걀 만치도 어긋남이 없느니라.
11. 마음이 흠어지면 귀신(鬼神)이 되고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精神)이니 귀신이 다른 곳에 있지

이달의 설법문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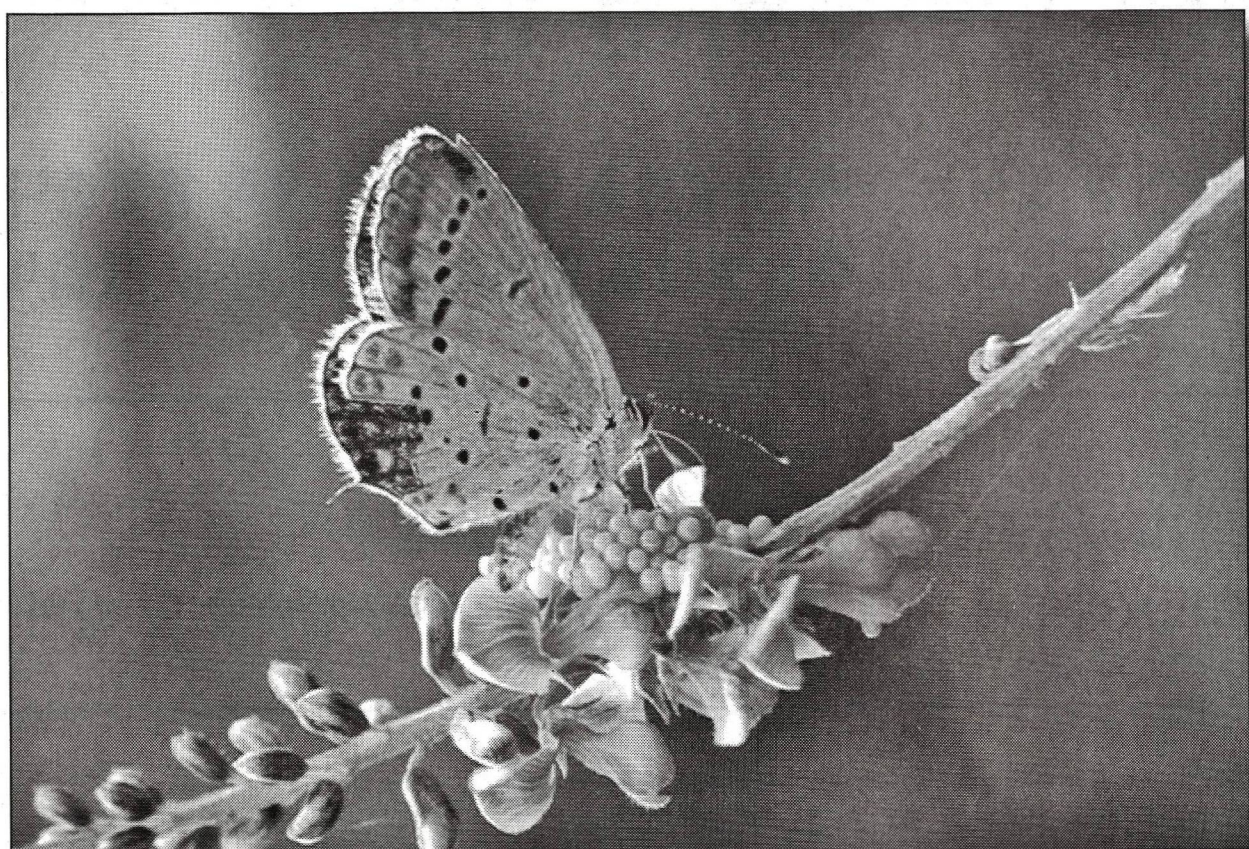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불은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영원한 진리의 일성을 터뜨리셨습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天下唯我獨尊)" 하늘 위 하늘 아래를 통틀어 내만이 홀로 높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아독존...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새겨 보면 이것 이상 솔직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나'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를 절대적 자리에 둔 다음 서열을 정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나' 다음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께까지도 '나'를 가장 사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없다'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른 스스로를 깨우치고 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나를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참된 '나'를 찾아야 하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밝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곧 내에 대한 집착이며, 집착은 순(順)과 역(逆)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맞으면 탐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분노합니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히고, '내 사랑'의 고무풍선을 불려 불려 중생이 터질 그날까지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자가 중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급한 일은 나를 찾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가장 소중한 '나'를 찾도록 가르쳐 주는 종교이고,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또한 불교의 지혜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

도록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부처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모든 개개인의 중생들에게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신 부처님에게 탄생의 그 순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로 스스로를 깨우쳐야 '나'의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찾는 일이 중요

가 중요합니다. '나'야말로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홀로 가장 높은 '나'를 찾기 위해 석가모니는 모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35세의 나이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특하다. 모든 중생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었건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윈다면 바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진아(眞我)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아를 찾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 서나 어느 때에나 한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유아독존의 '나'를 깨달아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석가모니는 참으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열반의 그날까지 중생들과 함께 하며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올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나'를 찾고,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많습니까. 중생의 그릇에 따라, 병에 따라 약을 주고 가르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르침 속에 하나의 핵심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가르침은 석가모니불만이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다는 <칠불통계>에도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있는 유아독존을 찾아 스스로의 진실을 체득하고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열반할 때에 '자등명, 법등명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참 '나'를 찾아 수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결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등을 돌아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수행의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내가 밝힌 등불이 나의 앞길을 밝혀주듯이, 나 스스로 경계하고 경책할 때 길은 저절로 보이기 마련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참회 정진할 때 대도(大道)의 문(門)은 활짝 열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편집자주)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불교텔레비전 개국 10주년”

효강 종령예하 축하메시지 전달



영상포교 시대의 지평을 연 불교 TV(회장 성우 스님)가 3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총지종이 개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이사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TV는 95년 케이블TV 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위성방송까지 병행하고 있어 '영상을 통한 법음의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전 사장을 비롯해 전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불교TV를 지켜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당시, 저 또한 잠시나마 불교TV의 큰 소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간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또한 불교TV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모든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불교TV가 언제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오며 무궁한 발전을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영상포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영상을 통한 포교는 시대의 대세이며 불교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가호호가 그대로 법당이요, 부처님 전당이며 바로 불국정토를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TV가 바로 포교의 전당이고, 중생구제의 최일선입니다.

불교TV의 개국은 2천만 불자의 자존심과 긍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과 모든 불제자들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불교TV의 발전을 서원하였다.

불교TV는 아직 미약한 재정 확충 및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미흡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의 흥포에 더욱 매진하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강경중교장, 이대우교감 퇴임식 “창의적인 자기혁신과 계발만이 살길”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강경중교장과 이대우교감 장년 퇴임식을 2월 19일 동해중 도서관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회장과 교내 교사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강경중교장과 이대우 교감은 올해로 장년이 되어 30여년 동안 근무했던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강경중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동해중학교는 초창기에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유능한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 그 명성이 높았으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그 명성은

떨어지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종단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은 눈에 보이는 시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환경이 더욱 중요하며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혁신과 계발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힘을 결집하여 노력할 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동해중학교가 국가의 교육이념과 종단의 건학이념을 살려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행체험 19

“행복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



박원순(대결정)보살 (실보사 신정희 회장)

▶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총지종에 입교하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부산 관음사에 다니시고 계시고 막내 아들이 지금은 26살이 되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따라 관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교가 무엇이고, 밀교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왔다 갔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의 의미를 알게 되어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나와

를 내는 사람과 가난한 살림살이라 할 지라도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가진 것은 없어도 행복한 웃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얻은 것은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불법을 만나 공부하고 불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그동안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절에 나와 불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공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라 생각하고 매일 매일 절에 나와 불공하고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수행법에 고쳐야 할 점이 있으시다면? 총지종 수행법은 일반 사찰에서 하는 수행법과 많은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오마니반메움을 염송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이 빠지게 되고, 참회를 통해 하루 하루 일을 참회할 수 있고, 불공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불공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저는 총지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였기 때문에 총지종 법이 마냥 좋지만 각 사원마다 젊은 사람들이 적은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일까요? 앞으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단과 실보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우선 한 사람이라도 제도하기 위해 오늘날도 용맹정진하시고 계신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용맹정진과 서원으로 총지종은 날마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공하여 주시며, 아버님, 어머니처럼 항상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어렵고 힘들 때면 같이 울고, 즐거울 때면 같이 웃어주시는 정사, 전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실보사의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도와 실보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보살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어 건강과 해탈을 이루시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종단에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여러 사원에서 보살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노 보살님들을 위한 양로원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총지종에서 수 십년 동안 수행하신 보살님들은 타의든 자의든 자녀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또는 자녀들이 그분들을 봉양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종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총지종을 만든 것도 다 그분들의 용맹정진과 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도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마련하여 노 보살들이 수 십년동안 수행해온 이 법을 열반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생각하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공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자기 밥그릇 찾아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는 것과 절에 나와 불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절에 다니면서 성격이 활발해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돈도 많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데 항상 불평불만하며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에도 탐심

있습니다.

각자님은 제가 절에 매일 나오니까 '절에 너무 유혹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곤 하며 은근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실보사 교도들의 자랑거리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원도 그렇지만 실보사는 모든 교도들이 가족처럼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보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불공하시는 보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덕본인자 보살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마치 부처님처럼 신성스럽고 신비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보살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보살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하며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에도 탐심

나도 한마디

지난 3일 서울 서초 동 정동화관에서 지울 스님은 고수철도 천성 산 관동 반대와 환경영향재평가를 요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건 단식 100일을 넘기는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으며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긴장감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담한 결단으로 지울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울스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 이번 지울스님의 단식을 보며 모든 불자들은 가슴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며 '제발 스님을 살려주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번 일을 보며 다시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발로 문জে 버린 풀 한 포기, 별레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불성이 있으며, 이

러한 생물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혹자는 지울스님의 단식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지만 한번 훼손당한 자연은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란 것을 왜 모르는지...

산업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생명의 소중함은 소멸되어 가고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분노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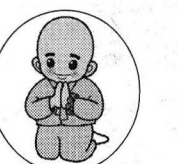
지진과 해일, 태풍, 환경오염, 공해, 폭염과 폭풍우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 가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멀리하면 현재는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때 후회한다면 너무 늦어버린 시간일지 모른다. 우리사회는 날로 삭막해져 삶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영랑/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생명의 소중함을...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호 존중 기술 혁신 고객 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 (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